

고 박병학(63) 선배님을 추모하며

이중오(64년)

Virginia 에서 2020년 9월초



박선생님은 금년 90 세로 올란도에 은퇴해 사시다가 지난 달에 돌아가셨다. 미세스 박의 전언에 의하면 마지막을 조용히 영면하셨다고 한다. 벤박께서 나를 버팔로에서 부터 특별히 귀여워해 주시고 아껴주셨고 그리고 올란도에서 더 10 여년간 내 개인의 인생에서 소중한 분이였다. 내가 선생님을 처음 뵈는 것은 선생님께서 버팔로 뉴욕 주립대학의 소아과 교수로 오셨을 때였는데 선생님은 그 모임에서 연미복에 나비넥타이를 하고 나오셨다. 선생님은 멋을 아시는 신사이실뿐만 아니라 박식하신데도 늘 겸손하셨다. 뒤에 나오는 은퇴후의 삶에 대한 좌우명을 평소에도 늘 지키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내가 올란도로 은퇴를 한 뒤에는 더 자주 찾아 뵈 수 있었는데 특히 부인께서 훌륭한 요리 솜씨로 자주 초대를 해주셔서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나도 선생님께 일조를 해드린 셈인데 버팔로에 오셨을 때 여름동창모임에서 선생님께 처음 골프채를 잡으시도록 해드린 일이다. 올란도에 사시는 동안 어느해인가는 일년중에 300 일 정도는 골프를 즐기셨다고 한다, 대단한 짐념이시였다. 선생님은 의학 전반에 관한 지식은 물론 인문학에도 조예가 깊으시고 유교, 불교 그리고 특히 도가 사상에 심취하셔서 옆에 있으면 내자신의 내면에서도 살이 찌는듯한 풍요로움을 느끼곤 했다. 선배님께서 버팔로 주립대학에서 은퇴하시고 여생을 어떻게 사실까 하는 좌우명을 써서 남겨두시었던 것을 소개한다.

the rest of my life

1. Today is the frst day of the rest of my life
2. I shall deliberately keep my spirit up and be happy.
3. I shall deliberately hold face smile.
4. I shall keep my mental immage of myself as a man who is always:
 - a) sharply dressed gentleman with upright posture.
 - b) courteous,gentle,forgiving.
 - c)intellectual leader and teacher
 - d) a physician who has an enormous healing power.

5. I shall enjoy my hobby of golfing and playing piano.
6. I shall be a person who is always relaxed and radiating mental power of peace.
7. I shall keep up with advance of knowledge and collecting thought for writing books, essays, etc.
8. I shall reach my goal of financial security by 1995 for my wife and myself

Ben Park, M.D.
5/15/84 2pm

선생님께서 늘 즐겨 쓰시던 경구

Carpe diem

Memento mori hodie mihi, cras tibi

오늘을 허비하지 말고 소중히 보내라

죽음을 염두에 두라.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오는.